NEXEN TIRE MAGAZINE

HELLO NEXEN

2024 AUTUMN VOL. 97



네 바퀴!
인생의 방향을 찾아 떠나는 여행

ROAD MAP

www.nexentire.com



SPECIAL THEME

네 바퀴! 인생의 방향을 찾아 떠나는 여행

ROAD MAP

06 **#TREND CODE**
변화의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스핀오프 프로젝트

10 **CHECK POINT**
하반기를 맞아 자체 점검!
당신은 LEAP PLUS 중인가요?

14 **ON THE ROAD**
너른 산의 품속에서 한 걸음!
삶의 방향을 찾아가다

20 **HEALING NOTE**
인생의 방향성을 찾아!
로드맵이 되어 줄 문장들

헬로우 넥센

2024 AUTUMN(통권 97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24년 10월 2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문화혁신팀 정재환 팀장, 김희진 책임
기획 및 출판 (주)대통기획 02-2269-3613
ISSN 2765-2904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FSC
www.fsc.org
MIX
Paper | Supporting responsible forestry
FSC® C159581

본 사보의 표지 및 내지는 FSC® 인증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STATION 1

24 **Tire Tech**
전문성과 세밀한 서비스
신뢰를 쌓는 정공법

28 **해피타임**
머리로 하는
이색 미니 농구 게임

32 **라이프 구독**
채소 구출 작전!
못난이 농산물 구독 서비스 체험

36 **착한챌린지**
착한 영향력
나의 선함을 널리 알려라!

40 **NEXEN CSR**
장애인 복지관 아이스크림 전달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축구단 후원도

42 **넥센 in Global**
호주법인
중장기적 판매 활로를 찾아!

STATION 2

48 **당신의 알고리즘**
불편해도 내 취향! LP에 푹 빠진 사람들

52 **그린 인포**
스포츠도 피해 갈 수 없는 기.후.위.기

56 **컬쳐 티켓팅**
가을, 센치해지는 계절! 문화로 감성 충전하러 간다

62 **알쓸IT잡**
예술계를 뒤흔든 풍운아?!
한계를 모르는 아티스트 AI씨!

66 **ISSUE 1**
마곡 직원들과 함께한 영화 '파일럿' 단체 관람

68 **ISSUE 2**
사내 원데이 클래스 라탄 공예 조명 만들기

70 **ISSUE 3**
반세기 동안 이어진 품질혁신
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72 **ISSUE 4**
제1회 노동조합 지부장배 탁구대회

74 **NEWS**

SPECIAL THEME

ROAD MAP

내비게이션도, 지도 앱도 없었던 시절
길 잃은 여행자의 나침반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두운 밤하늘에서 또렷하게 빛을 내는
북두칠성을 기준 삼아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낯설기만 한 인생의 초행길에서
우리가 뒷걸음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며
나만의 로드맵을 그려갈 수 있는 것은
찬란하게 반짝이는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 후로 가끔은 누군가 인생의 정답을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으시죠!
지금 어디쯤 온 것인지,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릴지…
하지만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어, 더욱 특별하고
더 흥미로운 것이 여행의 묘미입니다.

#Trend code

Spin off project

변화의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스핀오프 프로젝트

한 조사에서는 2040세대 가운데 90%가 스핀오프 프로젝트에 관심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자신만의 스핀오프 프로젝트를 통해 인생에 잠자고 있던 가능성을 탐색하는 현대 직장인들!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스스로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금! 당신의 잠재력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가?

Text. 이혜원(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성취감! 인생의 달콤한 성장 촉진제

예능 <도시횟집>과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의 공통점은 스핀오프 콘텐츠란 점이다. 낚시 프로그램이었던 <도시어부>가 성공하자 동일한 캐릭터들이 횟집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확장됐으며, 팬덤을 형성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상황과 인물을 가져와 전공의의 이야기로 새롭게 변신한 것이다. 이처럼 스핀오프란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원작을 기반으로 새로운 작품이나 캐릭터를 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제 브랜드, 기술, 조직 관리 그리고 개인의 경력 개발 영역까지 스핀오프는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는 시대에 상품과 브랜드가 스핀오프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고 팬덤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처럼, 개인 역시 역량 스핀오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스핀오프는 보통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불린다. 비공식적으로 자신만의 과업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본업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거나, 관심 분야를 탐구하며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출처 tvN)

ex> 01

콘텐츠 플랫폼 개발자
이OO 씨



"저의 **스핀오프 프로젝트는 '시니어들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앱 개발'**이에요. 전 직장 선배 개발자, SNS에서 알게 된 디자이너까지 팀을 이루어 주말마다 모여 개발에 매진하고 있죠. 6개월이라는 목표 기간을 설정하고, 매주 해야 할 과제를 꼼꼼히 수행하면서 퇴근 후 시간을 보냅니다. 주도적인 진행 방식이 어렵기도 하지만,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이끌어 나가는 경험은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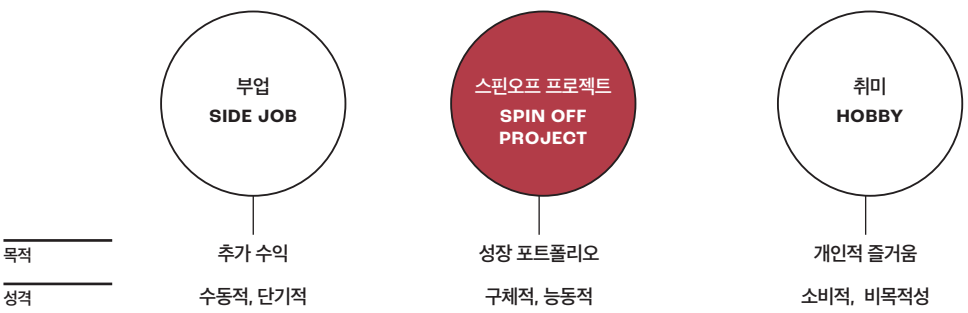
ex> 02

글로벌 여행사 마케터
강OO 씨



"저는 고양이 집사로 관심을 갖던 **'반려동물 기록 서비스'의 객원 마케터로 도전**했어요. 고양이를 키우면서 우연히 알게 된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섬세한 서비스 구성에 매료돼서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놀랍게도, 그 팀 역시 회사에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러한 공통점 덕분에 부담 없이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마케팅 전문성을 발휘하며 역량을 넓히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스핀오프 프로젝트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주도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이것이 취미나 부업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다. 스핀오프 프로젝트의 목적은 '개인 성장'에 가깝다. 단순한 즐거움과 금전적 보상보다 다른 사람과의 협업을 통한 자기 성장, 포트폴리오 쌓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개인 스핀오프 프로젝트는 단순한 부업이나 취미 활동과는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부업은 당장의 추가 수입만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음식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이 여기에 속한다. 피고용인 신분으로, 정해진 업무 범위 내에서 일하며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스핀오프 프로젝트는 자신의 기존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하여 시작된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경력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스핀오프 프로젝트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주도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이것이 취미나 부업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다. 스핀오프 프로젝트의 목적은 '개인 성장'에 가깝다

한편 취미는 개인적인 즐거움과 여가 활용을 위한 활동이다. 나의 역량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수입은커녕 오히려 돈을 쓰게 한다. 반면 스핀오프 프로젝트는 명확한 목표 설정, 체계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능동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실제 일을 하듯이 진지함이 필요하다. 당연히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투자한다.

물론 개인의 스핀오프 프로젝트가 큰 수익을 내,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패드용 다이어리 템플릿으로 연 매출 27억 원을 달성한 낼나 역시 각자 직업이 있던 고등학교 동창 3명의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다. 유튜브에 올린 아이패드 영상이 인기를 얻자, 디자인 역량, 웹사이트 제작 경험, 유튜브 채널 운영 경험을 모아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수익 창출과 함께 본격적인 기업 운영을 시작했고, 사업 성장과 함께 다른 디자이너 제품 판매, 실물 굿즈 제작 등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작은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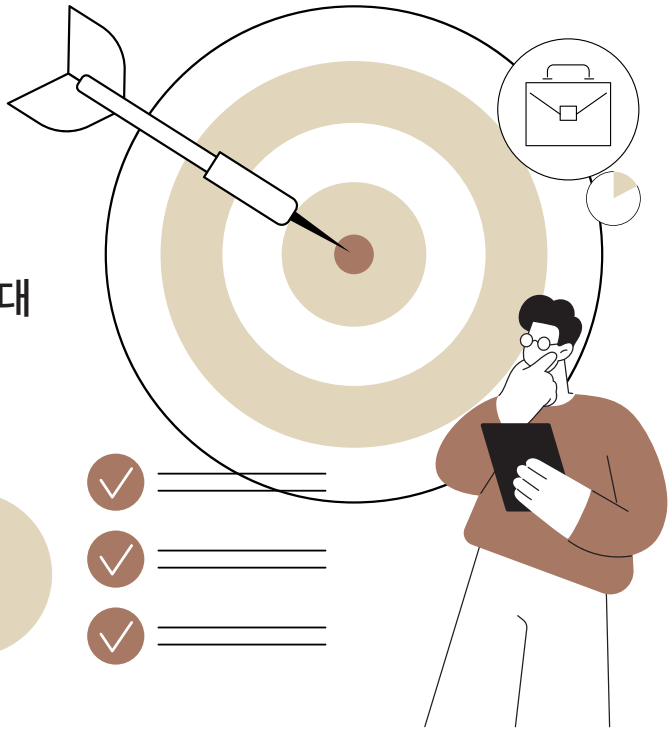
이처럼 개인 스핀오프 프로젝트는 단순한 아이디어 실험을 넘어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담 없이 시작하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리타 맥그래스(Rita McGrath) 교수는 변화와 연결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꾸준한 실험적 시도를 통해 빠르게 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른바 '일시적 우위(transient advantage)'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기술 발전이 급격한 예측 불가능의 시대에, 순간이라도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개인 스핀오프 프로젝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를 맞아 자체 점검! 당신은 LEAP PLUS 중인가요?

설문기간: 2024년 9월 10일~11일
참여자: 162명

열심히 달려온 올 한 해도 어느덧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체적인 중간 점검이 필요한 때인데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재정비를 해봅니다. 넥센인들과 함께 하반기 로드맵을 다시 그려볼까요?



중간 점검! 올해 초 세웠던 계획의 달성률은?

50~60%대
40.49%

70~80%대
35.58%

설문에 참여한 넥센인 중 약 76%가 계획 달성률 절반을 넘겼습니다. 대단한 의지인데요! 아직 올해가 석 달이나 남았습니다. 동료들의 달성률을 보고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볼까요?

30~40%대
12.88%

20%이하
4.29%

90%대 이상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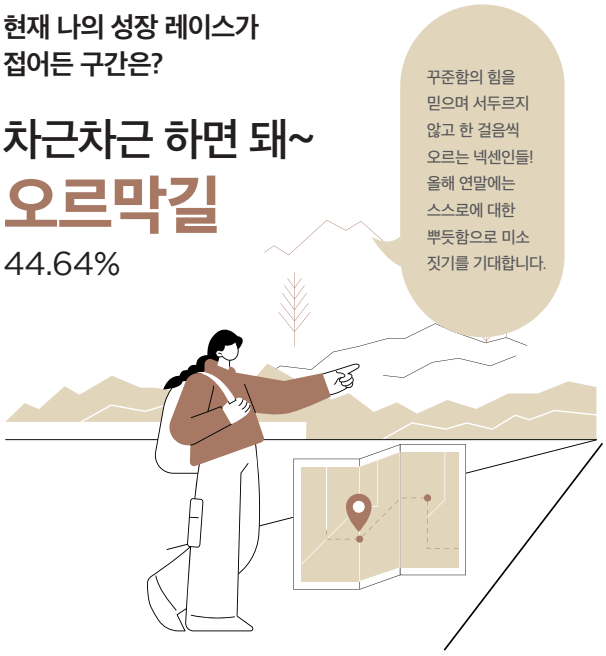
기타 0.61%

'꾸준히 운동하자!'는 계획이 습관으로 유지 중입니다. 계획 달성 100%
서용준

가족계획 12개 중 5.5개 달성! 0.5개는 매월 책 한 권 읽기인데 어렵네요. ^^
유민

현재 나의 성장 레이스가 접어든 구간은?

차근차근 하면 돼~
오르막길
44.64%



고구마 100개
정체구간
15.48%

셀프 칭찬해!
심화단계
8.93%

길을 잃었나?
안개구간
13.69%

탄탄대로!
아우토반
3.57%

선택의 순간!
갈림길
10.71%

기타 5.35%

방향성은 맞다!
버티기만 하면 됨!
박대희

천천히 하면 돼!
힘 빼고 살아! 완숙단계
김봉수

지금 매우
잘 하고 있어!
킵고잉 당당구간
남현지

작심삼일
도르마무!
신미진

나의 성장 로드맵에 추가하고 싶은 코스는?

토닥토닥 마음아!
힐링코스
32.26%



경험치 만렙,
체험코스
31.18%

정신이 번쩍!
극한코스
13.98%

사랑의 힘
커플코스
10.22%

칭찬 배터리
당근코스
9.68%

기타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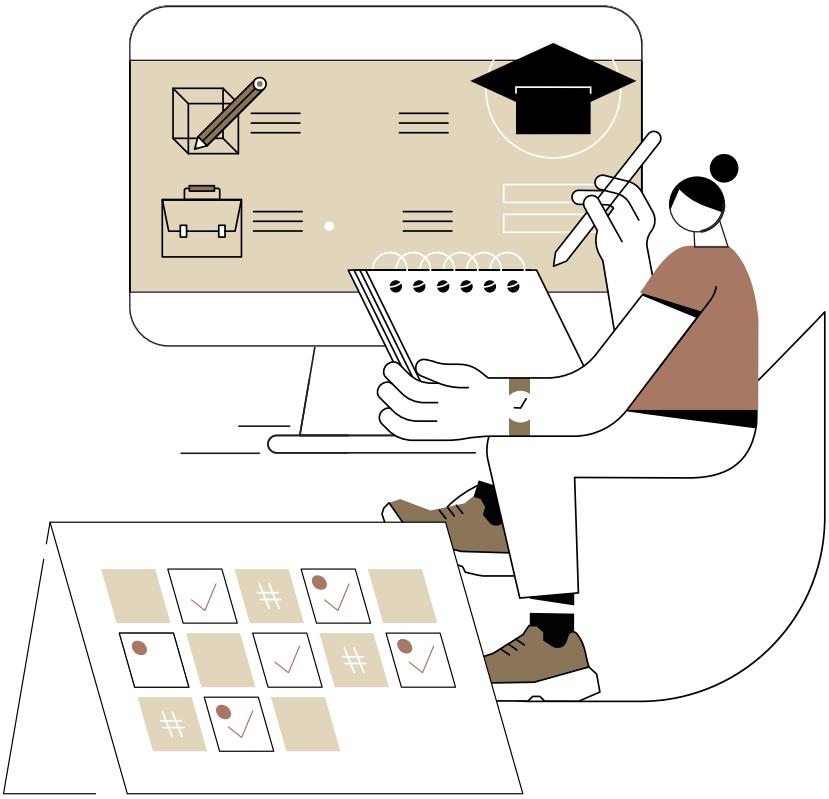
우당탕탕
시행착오코스
송민석

바른 성장
중간 점검! 보상 코스
이혜윤

새로운 도전
창조코스
탁세원

2024년 하반기
다시 성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등급 테스트, 자격증 등
데드라인 만들기
38.07%



전문가를 통한
트레이닝 받기
(feat 수강료)
32.39%

최측근을 감시자로 만들어
잔소리 공격
6.82%

커뮤니티 가입
러닝메이트와 함께 하기
11.36%

소소한 성과를 SNS에 올려
좋아요 받기
5.11%

기타 6.25%

나를 위한
조직을 위한 휴식
박종수

독서를 통한 선지자들의
경험과 지혜 배우기
유상효

시련이나 방해가
있더라도 걸어가기,
어차피 인생은
오르락내리락
이규채

삶의 로드맵에 결정적 터닝포인트를 만든 '그것'?

코로나19로 외로웠던
마지막 대학 생활
이도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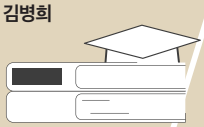
20대에 혼자 떠난
1,300km 까미노 대장정!
박재권



약 3년 간의 나 홀로
해외 생활(feat.체코 공장)
서혜정

회사에서 멘토를 만나 '현장을 알아야
성장한다'는 것을 배웠을 때
김영두

다시 한번
대학원 진학!
김병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 말고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순간!
김기현

집사람 따라 시작한 배드민턴!
이제는 대회도 나가고 동호회 회장도 하고!
정해철

2008년 금융 위기를 뚫고 떠난
나 홀로 미국행
지시언



달리기 시작! 체력 충전하고
다이어트 성공한 계기
권유화

초등학교 이후로 큰맘 먹고
다시 잡은 바이올린
김수현

반려견을 만난 날!!!
김서윤

중2병 걸린 자식
김남수

나 혼자 산다! 분가 모드~
이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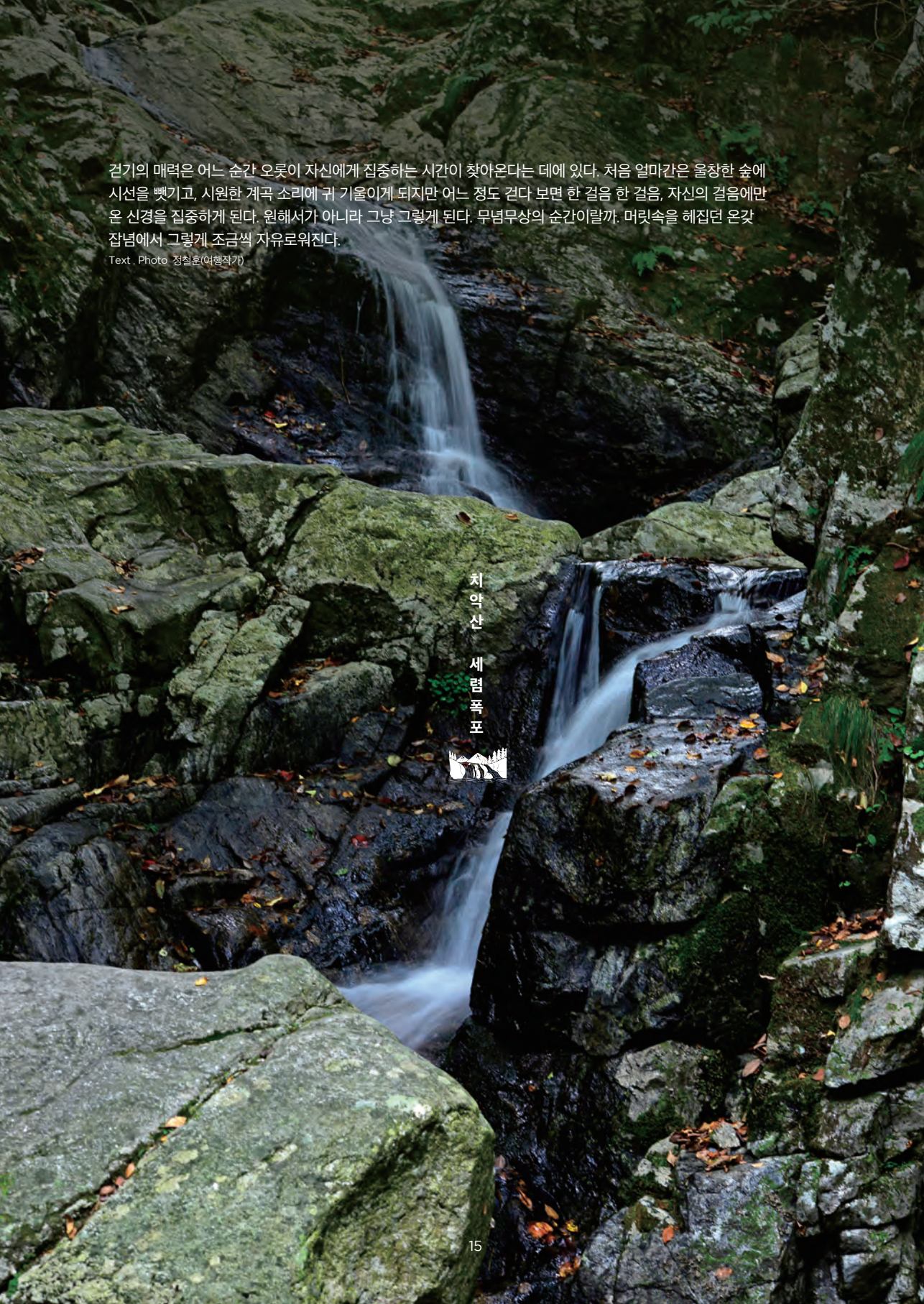
산을 알게 되었고
아직 배우고 있다
정중식



너른 산의 품속에서 한 걸음!
삶의 방향을 찾아가다

천관산 억새길 & 치악산 세렴폭포 코스





치악산 세렴폭포

걷기의 매력은 어느 순간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데에 있다. 처음 얼마간은 울창한 숲에 시선을 뺏기고, 시원한 계곡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지만 어느 정도 걷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걸음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된다.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다. 무념무상의 순간이랄까. 머릿속을 헤집던 온갖 잡념에서 그렇게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Text , Photo 정철훈(여행작가)





INFORMATION

천관산

—

주소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산109-1

문의
061-860-0224
(장흥군 문화관광과)

입장료
무료

은빛으로 일렁이는 천상의 군무,
천관산 억새길

장흥의 가을은 천관산(해발 723m)에서 시작한다. 고개 숙인 벼가 노랗게 익어갈 즈음, 천관산 정상을 눈처럼 하얗게 뒤덮는 억새가 주인공이다. 천관산 억새는 최고봉인 연대봉과 환희대를 잇는 1km 구간에 군락을 이루는데, 그 규모가 축구장 180여 개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천관산 억새를 친견(?)하기 위해선 적잖이 발품을 들여야 한다. 천관산 억새가 펼치는 '천상의 군무'를 두 눈에 담고 싶다면 어떻게든 정상에 올라야 한다는 얘기다. 짧게는 2~3시간, 길게는 4~5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만만찮은 여정이지만, 바람에 일렁이는 은빛 억새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안다. 왜 이 가을, 천관산에 올라야 하는지를.

천관산에 오르는 루트는 다양하다. 그중 탑산사와 장천재 코스가 대표적이다. 천관산 억새를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다면 탑산사를 들머리로 삼으면 된다. 탑산사 코스는 해발 310m 지점에 위치한 탑산사 주차장에서 불영봉을 지나 연대봉에 오른 뒤 환희대와 구룡봉을 거쳐 탑산사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원점회귀 코스로 산행 거리는 5.7km 정도다. 장천재 코스에 비해 산행 거리가 2km 정도 짧아 빠르게 산정에 오르려는 이들이 많이 찾는다.





멋진 풍경을 발 아래 두고 걷는 재미도 탑산사 코스의 매력이다. 불영봉에서 바라보는 다도해는 그중에서도 백미.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황금 들녘은 '한 폭의 그림'이라는 표현이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혹적이다. 할 수만 있다면, 살짝 떼어내 거실에 걸어 두고 싶을 정도이다. 불영봉에서 선물처럼 마주한 그림 같은 풍경은 연대봉에 도착할 때까지 줄곧 좋은 길동무가 되어준다.

연대봉과 환희대를 잇는 구간은 오르고 내림이 거의 없는 완만한 능선을 따라간다. 1km 남짓 이어진 이 길을 따라 억새가 군락을 이룬다. 힘들게 산정까지 올랐으니, 지금부터는 억새의 아름다움을 느긋하게 즐길 차례다. 뭔가 대단한 걸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억새의 모습을 가슴에 담으면 그만이다. 같은 억새라도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은빛으로도, 연한 갈색으로도 보이니 걷는 내내 지루할 새가 없다. 걷다가 힘들면 능선 길 곳곳에 마련된 널찍한 자리에 누워 억새의 노래에 잠시 귀 기울여도 좋다. 서걱대는 억새 소리는 엄마 품에 안겨 듣는 자장가처럼 몸과 마음의 긴장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천관산 억새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사실 해 질 녘이다. 은빛으로 일렁이던 억새가 기우는 햇살을 좇아 황금빛으로 물드는 순간은, 감히 말하지만 우리 땅 어느 곳의 일몰보다 감동적이다. 여유가 된다면 산행 다음 날 아침, 정남진에서의 일출도 놓치지 말자. 검은 바다를 깨우는 아침 햇살이 천관산을 붉게 물들이는 순간의 감동은 산정에서 본 일몰만큼 멋지다.



INFORMATION

치악산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산33

문의
033-732-5231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 사무소
http://chiak.knps.or.kr

입장료
어른 3,000원, 중·고생 1,000원
초등학생 500원, 주차료 무료

금강송 솔향 짙게 밴 치악산을 걷다

치악산을 오르는 것은 구룡사 매표소에서 시작해 구룡사와 세렴폭포를 거쳐 비로봉에 이르는 게 일반적이다. 해발 1,288m인 비로봉까지는 왕복 12.1km, 7시간 정도가 걸린다. 구룡계곡을 따라 세렴폭포까지는 길이 순해 편한 걸음을 이어갈 수 있지만 세렴폭포에서 비로봉 구간은 매우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 하기 때문에 체력과 시간을 고려해 산행을 결정해야 한다.

구룡사 매표소를 지나면 시작부터 아름드리 금강소나무가 반긴다. 울진 소광리 금강송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자태다. 치악산이 키운 금강송은 질이 좋아 왕실에서 황장목으로 사용했다. 매표소 맞은편 언덕에는 이를 증명하듯 자그마한 바위에 '황장금표(黃腸禁標)'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무단 벌목을 금한다는 뜻의 황장금표는 치악산 금강송의 품질을 인정한다는 보증서인 셈이다.

매표소에서 산책로를 따라 5분 정도 걸으면 구룡사 일주문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에서 길이 갈린다. 왼쪽은 구룡계곡을 따라가는 산책로이고, 오른쪽은 솔숲으로 이어지는 흙길이다. 구룡계곡의 절경을 감상하며 걷고 싶다면 왼쪽으로, 자박자박 밟히는 흙길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된다. 어느 쪽으로 향해도 두 길은 구룡사에서 다시 만난다.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구룡사는 도선국사, 무학대사, 사명대사 등 수많은 고승이 수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구룡사를 벗어나면 치악산의 비경 중 하나인 용소가 기다린다. 구룡사 연못에서 쫓겨난 아홉 마리 용 가운데 눈이 멀어 동해로 가지 못한 용이 숨어들었다는 곳이다. 용소를 가로지르는 짧은 구름다리를 지나면 오붓한 오솔길이 시작된다. 구름다리에서 세렴폭포를 잇는 2.2km 구간은 이렇듯 순한 길이 연이어진다. 시원스레 흘러내리는 구룡계곡을 곁에 두고 걷는 재미도 쏠쏠하다. 구룡계곡은 세렴폭포까지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준다.





세렴폭포는 세렴안전센터 100m 전방에 있다. 2단으로 휘어져 내리는 세렴폭포는 수십 미터 높이에서 쏟아지는 폭포처럼 장쾌한 멋은 없지만, 한 폭의 수묵화처럼 은은한 기품이 느껴져 편안하다. 요란 떨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단아함이야말로 세렴폭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다. 구룡사 매표소에서 세렴폭포까지는 3.3km, 천천히 걸어도 4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다. 내쳐 비로봉까지 오를 생각이라면 오후 2시(동절기 오후 1시) 전까지 세렴안전센터에 도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것. 세렴안전센터에서 비로봉까지는 사다리병창이라 부르는 거친 산길을 3km 정도 더 올라야 한다.

인생의 방향성을 찾아! 로드맵이 되어 줄 문장들

필사 프로젝트 4탄

가끔은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할 때도 있다. 그럴 때 삶의 답을 찾아 좌충우돌하는 '로드무비' 속 주인공의 대사 한 구절이, 무심코 플레이한 위로 섞인 노랫말이 우리의 축 처진 어깨를 다독여 주기도 한다.



* 지난 여름호 필사 참여자의 실제 인증 사진입니다.

EVENT

참여기간 2024년 10월 2일 ~ 20일까지

QR 찍고 필사 인증하기!

넥센인들의 힐링을 위해 <헬로우 넥센>이 준비한 '필사 이벤트'입니다.
손글씨로 써내려간 필사 페이지의 인증 사진을 보내주시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패배자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시도도 안 하는 사람이란다.
넌 도전했고 도전에는
용기가 필요하지.
네가 자랑스럽구나.





-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

내가 니 편이 되어 줄게
괜찮다 말해 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 노래 <내가 니 편이 되어 줄게>

STATION 1

선선한 가을바람에 실려 온 넥센인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정공법으로 신뢰를 쌓고 있는 타이어테크 마곡점과
간식을 두고 벌인 마곡 구성원들의 유쾌한 대결을 만나보세요.

또한 못난이 채소 구독 서비스를 경험한 넥센인들의 신박한 후기와
다양한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직원들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호주법인 현장을 함께 하세요.

24 Tire Tech
28 해피타임
32 라이프 구독
36 착한 챌린지
40 NEXEN CSR
42 넥센 in Global

마곡산업단지에서 새롭게 터를 잡은 타이어테크 마곡점! 교통과 상업 등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인만큼 고객 유치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타사 브랜드와의 치열한 경쟁도 피할 수 없다. 마곡점 홍건용 점장의 생존 전략은 단 하나다! 전문성과 세심한 관리로 탄탄한 신뢰를 쌓는 것! 지름길보다 언제나 정공법을 택한 그의 철칙이 타이어테크 마곡점의 서비스 방향이기도 하다.

Text 편집실 Photo 김정호

전문성과 세밀한 서비스 신뢰를 쌓는 정공법

타이어테크 마곡점



프로급 실력을 갖춘 어벤져스

지난 7월에 오픈한 타이어테크 마곡점은 신생 대리점답게 초심의 긍정 에너지로 가득하다. 청결하게 관리된 매장의 산뜻한 첫인상과 고객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365일 집중 모드까지! 타이어테크 마곡점의 출발은 이미 채비가 잘 되어 있는 듯하다.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 정도 같이 호흡을 맞췄던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조력자예요. 배터리부터 브레이크 패드까지 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남주홍 이사와 임효빈 팀장이 있어 저는 타이어 체크 및 판매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각자의 영역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배우다 보니 다각도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죠. 뒤처지지 않도록 최근에 나온 타이어 트렌드나 새로운 차량 정비 기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TIRE TECH
넥센타이어
HOFMANN



동료들의 전문성을 자랑하던 홍건용 점장은 일로서도, 마인드 컨트롤에 있어서도 멘토가 되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란 말을 덧붙였다. 무엇보다 동료들이 빛을 발하는 것은 남다른 주인의식 때문이다. 빠른 시간 안에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던 것도 한마음으로 함께한 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홍건용 점장 역시 대리점 시작 전부터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준비했다.

"산업단지 특성상 매일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타이어 구매 패턴, 선호하는 차량, 주행 습관 등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행거리가 많고 타이어 교체 주기가 짧은 상업용 차량 운전자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추천하고, 신속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어요."

더디더라도 서비스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홍건용 점장! 그는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만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끈끈한 팀워크로 함께하는 마곡점의 3인방은 '땀의 가치'를 통해 '신뢰'란 결실을 맺는 중이다.

진심이 만들어낸 따뜻한 풍경

타이어테크 마곡점의 베테랑들은 오랫동안 자동차 정비 경력을 쌓았던 만큼 타이어가 차량의 안전성과 성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고객에게 당당히 추천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입장에서 스스로 해당 브랜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홍건용 점장은 주저 없이 '넥센타이어'를 선택했다. 실제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은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어느 순간부터 고객들 또한 넥센타이어 제품의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성, 합리적인 가격대에 공감하시더라고요. 이와 더불어 제품 및 부품 교체를 제외한 타이어 밸런스 체크, 펑크 수리, 배터리 점검 등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고객이란 생각으로요!"

한두 달 전, 매장 정리로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었던 마곡점에 차량 한 대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행을 앞두고 타이어 마모가 심한 것을 발견해 대리점을 찾은 가족이었다.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던 마곡점을 찾은 고객의 사정을 들은 홍건용 점장은 신속히 타이어를 교체하고 편히 기다릴 수 있게 음료를 제공했다. 며칠 후 여행을 마친 고객은 감사 인사를 위해 다시 매장을 방문했고, 여행지에서 구입한 키홀더를 선물로 건네기도 했다.

"진심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넥센타이어 브랜드가 가진 진정성과 고객의 안전한 운행을 책임지겠다는 저희의 다짐이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서비스를 강화해, 다양한 요구에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을철 차량 정비 포인트 & 타이어 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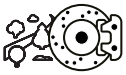
기온이 뚝 떨어진다면
타이어 공기압
체크 후, 보충



가을비! 미끄러짐 대비,
타이어 트레드
깊이 확인!



추운 날씨에 성능
저하될 수 있는
배터리 충전 체크



낙엽으로
미끄러운 도로,
브레이크 패드 상태 점검



여름 내 혹사시킨
에어컨, 가을철이
점검의 적기



가을 안개와 장거리 운전!
와이퍼 고무부터
상태 체크

타이어테크 마곡점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36


HAPPY
Let's play!
헬로우넥센
이벤트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담 홈 전 간식도 받고!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11:00~14:00



지난 9월 10일, 더넥센유니버시티 3층 카페 앞이 평소와 달리 왁자지껄했다. 삼삼오오 구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온 넥센인들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잘 받아봐요!”, “그렇지!” 한쪽에서는 응원을, 또 한쪽에서는 코칭이 난무하는 현장! 머리로(?) 하는 미니 농구 게임이 펼쳐지고 있었다. 탁구공을 던지는 사람과 머리에 농구 골대를 매고 공을 받는 사람으로 2인 1조 짝을 지었다. 게임의 룰은 이렇게 구성된 두 팀이 30초 동안 대결을 펼쳐, 시간 내 더 많은 공을 넣으면 승리다.

머리로 하는 이색 미니 농구 게임

한판 승부에 터진 박.장.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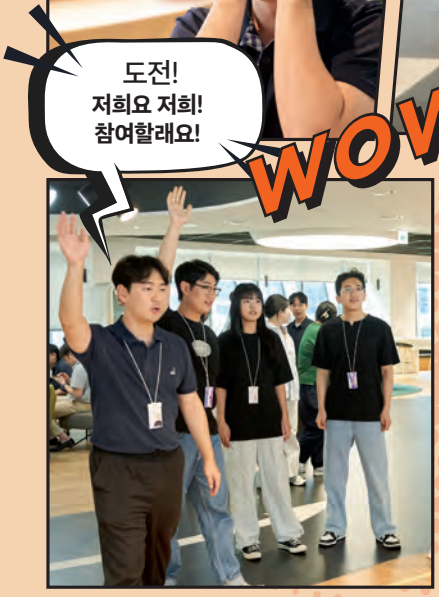
mini basketball

게임을 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책임님이 쓰세요!", "아니! 팀장님께서 쓰세요"라며 같은 팀끼리 실랑이가 시작됐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미니 농구 골대 모자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팀 내 분열(?)이 일었던 것! 소란도 잠시, 대결에 들어가자 참가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날아오는 공을 받아보겠다고 몸을 날리는 선수부터 완벽한 호흡으로 골 결정력을 보여준 팀까지 각양각색의 풍경이 연출됐다. 5! 4! 3! 2! 1!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바구니에 남아 있던 공 전부를 한 번에 던지는 과감한 플레이까지 등장했다.













이긴 팀은 활력 충전에 탁월한 '꿀 스틱'과 건강 간식인 '호두 정과'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 승부를 떠나 이벤트에 참여해 준 모든 넥센인들과는 파이팅 메시지가 적힌 간식을 나눴다. 2인 1조가 한 팀을 이루는 게임이지만 홀수로 참여를 희망하는 선수들은 머리에 직접 미니 농구 골대 모자를 쓰고, 자기가 공을 던져 직접 받는 셀프 형태로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동심에 돌아간 듯 아이처럼 신나게 웃었다"며 "3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오후의 피로를 싹 날려버렸다"고 사보 <헬로우 넥센>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업무를 하며 손발을 맞춰온 넥센인들의 팀 플레이가 빛을 발했던 미니 농구 게임이 동료들과 추억할 수 있는 작은 기억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Text 편집실 Photo 김정호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균일하지 않은 농산물들은 상품성이 떨어진단 이유로 상당량 폐기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폐기는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농부의 노동력 낭비와 경제적 손실로도 직결됩니다. 개성 있는 모습의 못난이 농산물을 구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식탁을 만들어보겠다며 넥센인들이 나섰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농산물과의 만남!

채소 구출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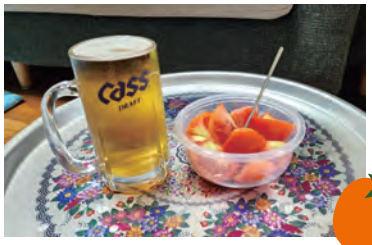
못난이 농산물 구독 서비스 체험



넝쿨째 굴러들어 온 신선함

“내 눈에는 매력쟁이 채소들”

(YP)생산기술파트
양현진 책임





문 앞에 도착한 택배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때마침 필요했던 각종 채소가 아이스팩과 함께 신선함 그대로 밀봉되어 왔습니다. 시들기 전에 바로 냉장고로 직행! 평소처럼 운동을 끝내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토마토에 맥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전문 호프집의 모듬 과일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하하)

한없이 예뻐 보이기만 한데, 도대체 누가 못난이 채소라고 한 거죠? 요알못(요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저를 위해, 배송 온 채소로 가능한 맞춤형 레시피까지! 이참에 요리도 한 번 도전해 보려고요. 아직 먹지 않은 채소들은 소분해서 담아두었습니다. 신선한 채소로 에너지 충전 제대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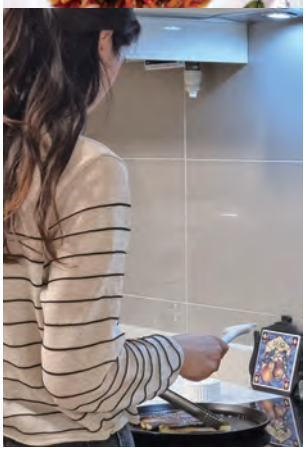
서비스 만족도 ★★★★★
재구독 의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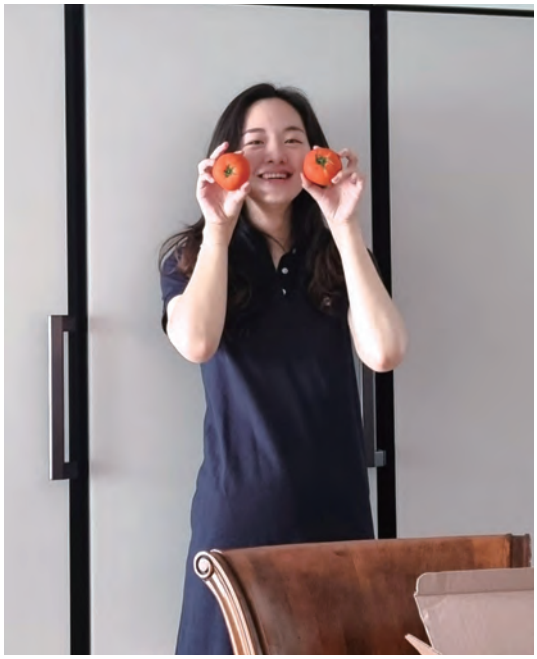
내외하던 채소와

극적 화해!

글로벌법인영업3팀
김수현 사원







어릴 때부터 가지와 척을 지고 살았는데요. 이번에 사보 이벤트를 통해 받은 가지로는 요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로 가지와 화해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배송 온 박스에는 팽이버섯, 콩나물 같은 반찬거리부터 처음 보는 땅콩호박까지 다양한 품목이 들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평소 먹어보지 않았던 재료들이라 궁금하기도 하고요. 채소들과 함께 레시피도 들어 있어서 메뉴 고민 없이 근사한 요리를 뚝딱 만들어 냈어요. 이름은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못나지도 않고 맛만 좋더라고요. 덕분에 집 나갔던 입맛도 돌아왔어요.



서비스 만족도 ★★★★★
재구독 의사 ★★★★☆

다채로운 채소와의 반가움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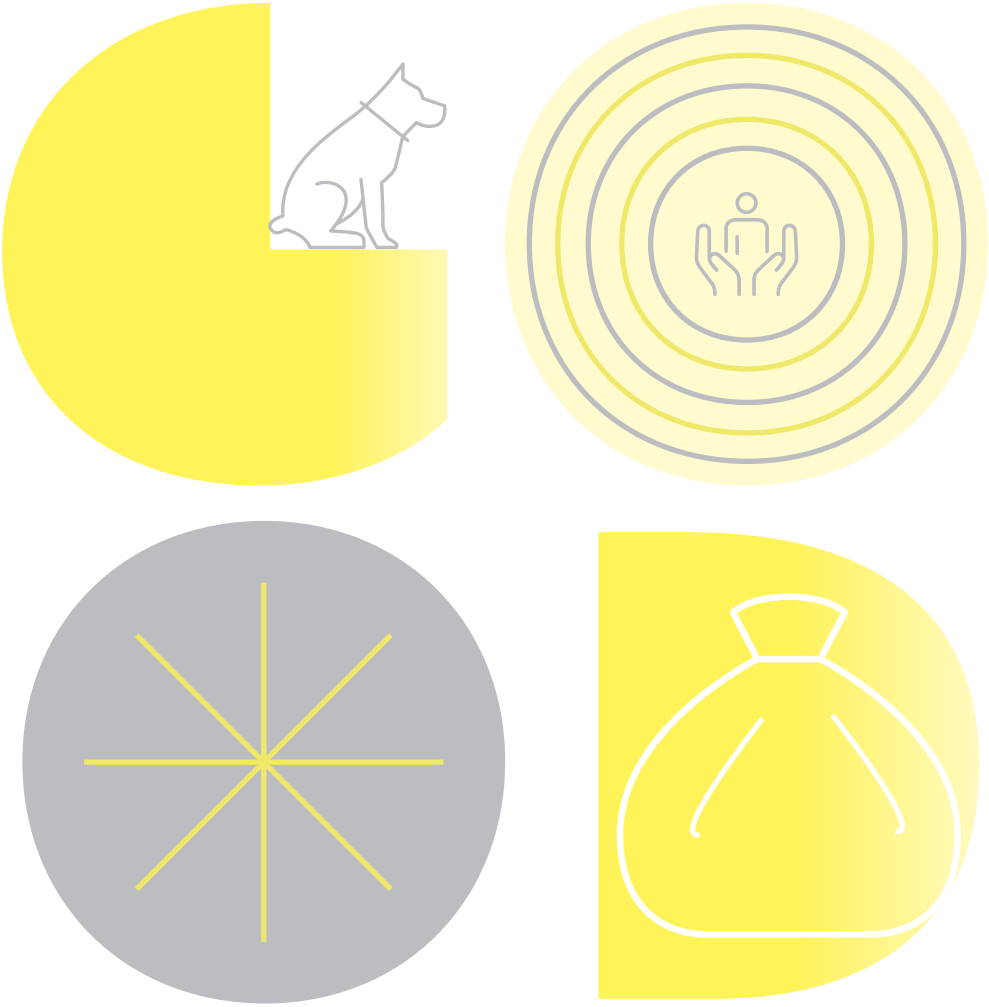
(YP)노사협력파트
박경만 책임



직접 마트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채소들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그리고 채소 종류가 랜덤이라 기대도 됐어요. 못난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채소들은 다듬어서 조리하다 보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배송된 채소를 직접 만져보고,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채소들을 경험해 보는 기회였고, 맛도 좋고 신선해서 만족스러운 구독 서비스였습니다.



서비스 만족도 ★★★★★
재구독 의사 ★★★★★



착한 영향력
나의 선함을 널리 알려라!

'선행은 몰래 하는 것이 미덕'이란 것도 옛말이다. 동료의 선한 행동에 자극을 받아 넥센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때, 세상은 조금은 더 살만한 힘을 얻을 것이다. 기적 같은 나비효과를 기대하며, 넥센인들의 빛나는 하루를 들여다본다.

'따끔' 한 번으로 사랑과 생명을 나눠요

(YP)정련파트 박한기 직장



헌혈은 군복무 중 서너 번 해본 게 다였는데 어쩌다 보니 244번째를 맞았네요. 함께 근무한 동료분께서 큰 수술(골육종)을 앞두고 지정 헌혈을 부탁하셨는데, 그때가 계기가 됐어요.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본격적으로 헌혈의 길에 들어섰죠. 처음에는 8주에 한 번 할 수 있는 전혈로 시작했다가 이후부터는 2주에 한 번 할 수 있는 성분 헌혈 위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희망나누미 봉사 회원들과 함께 양산 헌혈의집에서 단체 헌혈을 하고 회사명이 들어간 생명나눔단체 인증패도 받게 되어 기뻤죠. 주위에 헌혈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져서 더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나의 건강도 챙기고 덤으로 기념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혈은 사랑입니다~

challenge #4

어르신들의 건강과 식사를 챙겨 드려요~

YP기업문화팀 총무계 강동환 사원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복을 입고
봉사하기도 했어요~

양산공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노인복지관 배수로 환경정화 활동과 반찬 배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부터 한 달에 1번씩 하고 있는 양산시 노인복지관 후원 및 어르신들의 급식 봉사활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배식판에 밥과 반찬을 챙겨서 드리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간혹 팔에 힘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 후에는 식판을 받아 퇴식구로 넣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식탁도 깨끗하게 닦고 정리합니다. 후식으로 요구르트 300개를 후원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와 마음을 전하며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유기견 보호소로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공급계획팀 임정희 책임



지난해 구조된 유기 동물이 5만 마리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매년 반려동물 등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생명인데 길 위에 버려진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움이 들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이번 사보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처음으로 유기견 보호소에 방문했는데요. 봉사자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아이들이 예쁘면서도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보호소에 가서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청소하고, 밥을 챙겨주며, 실내에서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갔지만 오히려 제가 좋은 에너지를 받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전국 유기견 봉사활동 문의처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Text :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장애인 복지관 아이스크림 전달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축구단 후원도

넥센타이어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역 장애인을 위한 물품 기부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8월, 넥센타이어는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이용자는 물론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400개를 후원했다.

또한 넥센타이어는 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조금은 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역 내 양질의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뿐만 아니라 넥센타이어 희망나누미 봉사회는 2019년부터 매주 재가 세대를 방문하여 밑반찬을 전달하고 있으며, 말벗이 됨으로써 주기적으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을 체크하는 역할도 맡아 하고 있다.





호주법인! 중장기적 판매 활로를 찾아!

넥센타이어 호주법인은 2013년 지점을 설립한 이후, 2022년 10월 판매 법인으로 전환했다. 중장기적인 판매를 위해 시장 정보 수집 및 현황을 분석하며 꾸준히 방향성을 수립한 결과이다. 이후 2023년 8월 뉴사우스웨일주(NSW)의 1창고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1년 후 2024년 8월 빅토리아주(VIC)의 2창고 판매도 개시했다.



시장의 Key Player를 꿈꾸는 호주법인

호주법인이 위치해 있는 NSW 매쿼리 파크는 시드니 시내에서 약 25분 떨어진 곳이다. 주변에는 현대차·기아차 등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함께 위치해 있다. 법인장을 포함한 총 8명의 직원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호주와 뉴질랜드, 두 국가를 맡고 있다. 호주의 경우 국가 면적 크기가 세계 6위이지만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전략적인 판매 및 영업 계획이 필요한 곳이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창고 운영을 통해 Independent Retail에 직접 판매를 진행하면서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호주법인은 3년 이내 시장에서 Key Player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거래선과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 삼은 기념 사진



거래선 초청 호스피탈리티 행사

긍정의 에너지는 맨파워와 소통에서!

호주법인의 또 하나 에너지원은 8명의 구성원들이다.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은 물론 긍정적인 사고는 터닝포인트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었다. 업무 효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양질의 소통은 구성원 간의 친밀도에서 비롯되는 법! 호주법인은 직원 복지 및 응원 차원에서 매년 EOY(END OF YEAR) Dinner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화하는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일할 맛 나는 법인으로 변화하고 있다.

호주법인 구성원들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본사의 영업 BG를 비롯한 유관 부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입을 모아 고마움을 전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팀워크는 다시 한번 넥센타이어의 맨파워를 실감케 한다.

앞으로 5년 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호주법인! 그들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탄탄하게 신뢰를 쌓아가며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Q. 현재 호주에서의 생활은 어떠한지 궁금해요!

많이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호주는 이민자의 나라인 만큼 이민 정책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경계하는 문화가 없는 편이에요. 호주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 중의 하나가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건데요. 워낙 빠른 한국에 비해서는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운전면허증 교환이나 은행 계좌 개설과 같은 업무는 처리가 빠르답니다.





호주법인 직원 회식 현장

STATION 2

가을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아날로그 감성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LP 핫플레이스를 소개합니다.
또한 지난 파리 올림픽을 통해 더욱 부각됐던 기후 위기가
세계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에 미친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예술 분야를 통해 AI 진화를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을 다뤄봤으며, 더넥센유니버시티를 배경으로 한
영화 <파일럿> 단체 관람 이야기까지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48 당신의 알고리즘
52 그린인포
56 컬쳐 티켓팅
62 알쓸IT잡
66 ISSUE
74 NEWS

불편해도 내 취향! LP에 푹 빠진 사람들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나 깔끔한 음원으로 수백 곡의 노래를 듣는 요즘! 자신만의 취향과 낭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불편함을 무릅쓴 LP 마니아들이 나타났다. 지지직- 지지직- 턴테이블로 즐기는 아날로그적 음악 감상이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MZ에게는 레트로 감성을 충족시키는 중이다. 세대를 막론한 LP 사랑, 핫플레이스부터 구독 서비스까지 빠르게 따라가 보자.



핫하다는 LP 감상 공간

힙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무턱대고 턴테이블 먼저 샀다 가는 처치곤란 애물단지가 되기 일쑤다. 모두가 좋다 해도 본인의 취향에 맞는지 LP를 충분히 경험해 보는 것이 순서! LP를 다양하고 고전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핫플레이스를 모았다.



국내 최대 규모 LP 바 '뮤직컴플렉스서울'

2만 장이 넘는 LP로 벽면을 가득 채운 뮤직컴플렉스서울에서는 자리마다 개별 턴테이블과 헤드셋이 구비돼 있어 마음껏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기존의 LP 바는 DJ에게 노래를 신청해야 들을 수 있는 방식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마음에 드는 LP를 뽑아 자신이 직접 플레이하면 된다. 바(Bar)에서 음료와 맥주, 와인이 주문 가능하며, 최고급 음향기기가 세팅된 프라이빗 청음실은 예약을 통해 사용료를 지불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위치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9 안녕인사동 5층
운영 연중 무휴 12:00 - 24:00





밤라떼와 음악이 있는 LP 카페 ‘리슨페이지’

마치 유럽의 작은 마을에 온 것 같은 이국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을 반기는 곳이다. 벽면 나무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LP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카운터로 가져가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자정까지 문을 열고 있어 늦은 밤 감성을 채우기에도 좋은 곳이다. 한쪽에는 손님들이 자유롭게 플레이리스트를 적어 놓을 수 있어 음악 선곡에 참고하기도 한다. 카페의 시그니처인 달콤한 밤라떼와 LP, 그리고 카페의 마스코트 고양이까지!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공간이다.

위치 부산 연제구 중앙천로73번길 4 1층
운영 12:00-24:00 (일요일 휴무)

책과 음악이 머문 공간 ‘의정부음악도서관’

‘정숙’해야만 하는 도서관에서 종일 음악이 흘러나오는 의정부음악도서관! 이곳은 책과 음악, 공간이 융합된 음악 전문 도서관이다. 일반 도서뿐만 아니라 음악 관련 문학, LP, CD, DVD, 악보 등이 준비돼 있으며, 대여도 가능하다. 1층은 통창 앞에서 햇살을 받으며 독서를 할 수 있고, 3층에서는 재즈, R&B, 힙합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테이블 위에 헤드셋, 턴테이블 등이 놓여 있어 1,300여 점의 LP 감상이 가능하다. 한편에 마련된 오디오룸은 고급 음향 장비와 대형 스크린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위치 경기 의정부시 장곡로 280
운영 화~금 10:00-21:00,
토·일 10:00-18:00 (월요일 휴무)





TRACK 2

CHANNEL

LP랑 턴테이블도 정기 구독?!
'지직(zeezik)'

'레트로한 LP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쩌지?'란 고민과 고가의 턴테이블 때문에 아날로그 음악 감상을 주저하고 있다면 구독 서비스가 답이다!

LP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지직'은 한 달에 16,000원의 구독료를 내면 매달 구독자의 취향을 고려한 LP 2장을 보내준다. 첫 달에만 보증금 포함 32,000원을 지불하면 무료로 턴테이블을 제공받을 수 있고, 구독 3개월을 유지하면 턴테이블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음악을 큐레이팅 해주는 매거진을 통해 구독자가 LP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LP 구독 서비스





오디오테크니카
AT-LP60XBT

#음향 전문 브랜드 #20만원대
#블루투스 호환 #쉬운 작동법
#먼지 방지 커버

강추!

데논
DP-29F

#100년 오디오 브랜드 #15만원대 #버튼으로 쉽게 조작
#자동 톤암 시스템 #오디오 애호가 최애

TRACK 3

ITEM

LP 입문자 전용 필수템

본격적인 LP 감상을 위해 최소한의 장비 마련이 필요하다. LP 초보자를 위한 맞춤형 턴테이블과 청소 도구, LP 보관을 위한 비닐 등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아이템들을 살뜰하게 챙겨보자.

턴테이블! 디자인보다 음향이 중요

LP 입문자들이 턴테이블을 고를 때 자주 빠지는 함정 3가지가 있다. #10만원대_미만 #레트로_디자인 #간편한_휴대성! 싸고 보기에 예쁜 턴테이블을 고집하다 가는 청음실에서 느꼈던 LP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없다. 캠핑 갈 때도 챙겨가고 싶은 마음에 휴대가 가능한 제품을 사기도 하는데, 그만큼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저렴한 턴테이블의 경우, LP를 플레이하기 위해 올리는 팔 모양의 '톤암'이 가벼워 LP가 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5만 원~25만 원대 턴테이블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인테리어도 놓칠 수 없다!

턴테이블과 LP를 집안에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따라 인테리어 분위기가 확 바뀐다. 나무 소재로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 아크릴과 철제로 젊고 현대적인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다.





음질을 위한 LP 관리 필수템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들었기 때문에 LP는 정전기 발생이 많아 먼지 관리가 중요하며, 소재 특성상 열과 습기에 약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턴테이블 &
LP 기본 사용 습관



먼지 제거를 위한
LP 브러쉬

턴테이블에 레코드판을 올려 회전시키면서 먼지 제거

손 자국 등 제거 위한
스프레이 세척제

물 세척도 가능하지만 LP 라벨 손상이 걱정된다면 세척제 사용



관리를 위한
속비닐 & 겉비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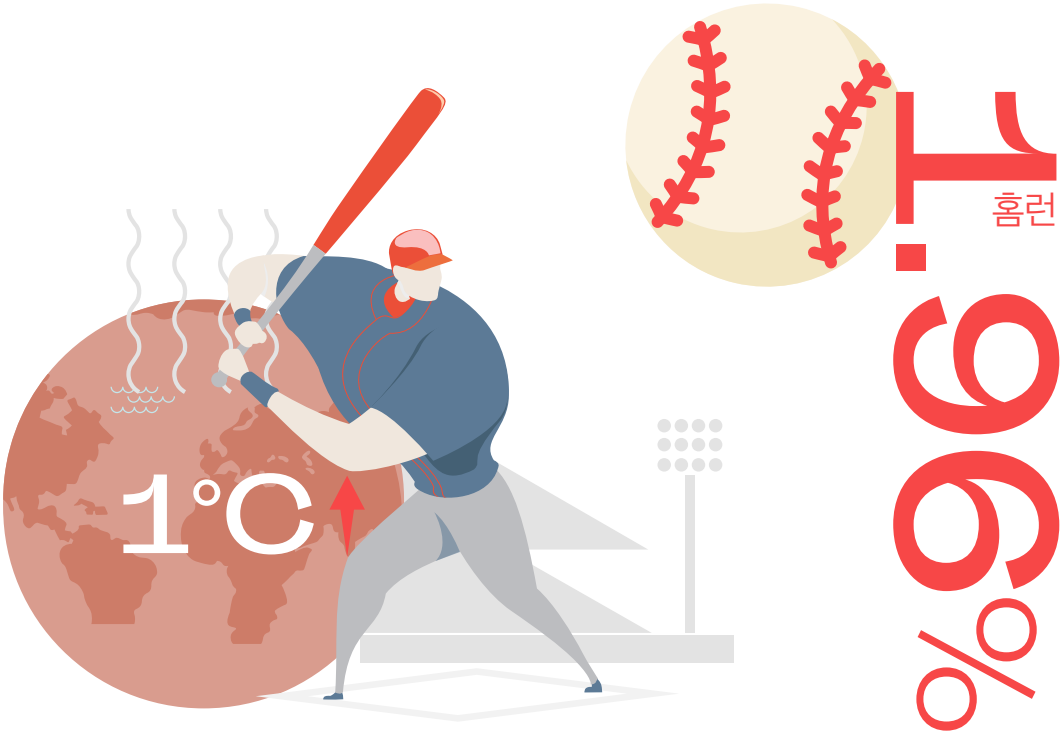
구입했을 때 들어있는 종이 속지는 종이 가루, 습기 때문에 LP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닐 재질 속지로 교체



LP 커버 손상을 막는 동시에 미개봉 상태로 보관 시, LP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 링웨어도 방지할 수 있다.

스포츠도 피해 갈 수 없는 기.후.위.기

예측할 수 없는 폭우와 폭염, 숨쉬기 힘든 미세먼지의 공격 등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문제는 예측과 통제를 벗어난 수준에 이르렀다. 야외에서 펼쳐지는 스포츠 종목들은 물론 세계인들의 축제인 올림픽까지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온 1℃ 상승할 때마다

홈런 1.96% 증가한다?!

기후변화로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야구의 홈런 개수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2023년 미국 다트머스대학 연구진이 메이저리그의 약 30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온이 높아지면 공기의 밀도가 낮아져 야구공이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돼 홈런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메이저리그 홈런이 1.96%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존의 평균 홈런 수보다 577개가 추가로 더 발생했다. 홈런 좀 많아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기후변화의 상징적인 시그널인 셈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염과 미세먼지로 지난해 취소된 국내 야구 경기만 90개가 넘었다.

이처럼 환경 문제로 직격타를 맞게 된 야구 업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메이저리그는 2008년부터 '그린 글러브 어워드'를 만들어 가장 친환경적인 팀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간 3,000t에 이르는 야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와 스마트 티켓 사용, 일회용 응원도구 금지 등을 도입하고 있다.

문 닫는 알프스 스키장들

동계올림픽도 100% 인공 눈

사시사철 만년설을 자랑하던 알프스산맥의 눈이 사라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알프스 북쪽 지역의 몇몇 스키장들은 영구 폐쇄됐으며, 일부 리조트는 궁여지책으로 눈이 없는 스키장을 산악자전거 코스로 개발하고 있다. 뜨거워진 지구의 영향은 비단 스키에서 끝나지 않았다. 내리지 않는 눈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동계올림픽은 인공 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은 인공 눈 사용이 80%를 차지했고, 2018년 우리나라 평창에서는 90%, 2022년 중국 베이징에 이르러서는 100% 인공 눈을 사용한 경기장이 등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인공 눈과 얼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2030년과 2034년 개최지를 동시에 선정했다.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2080년에는 역대 올림픽을 개최했던 19곳 중 6곳만 재개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공 눈이 겨울 스포츠의 답이 될 수는 없다. 인공 눈 1㎥ 부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400L의 물이 필요하며 인공 제설기 가동에 화학연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연 눈보다 공기 비율이 20% 적은 인공 눈은 더 단단해서 선수들의 부상 위험도 높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올림픽 시설 재사용, 관객과의 환경 캠페인, 경기를 위한 항공권 사용 최소화 등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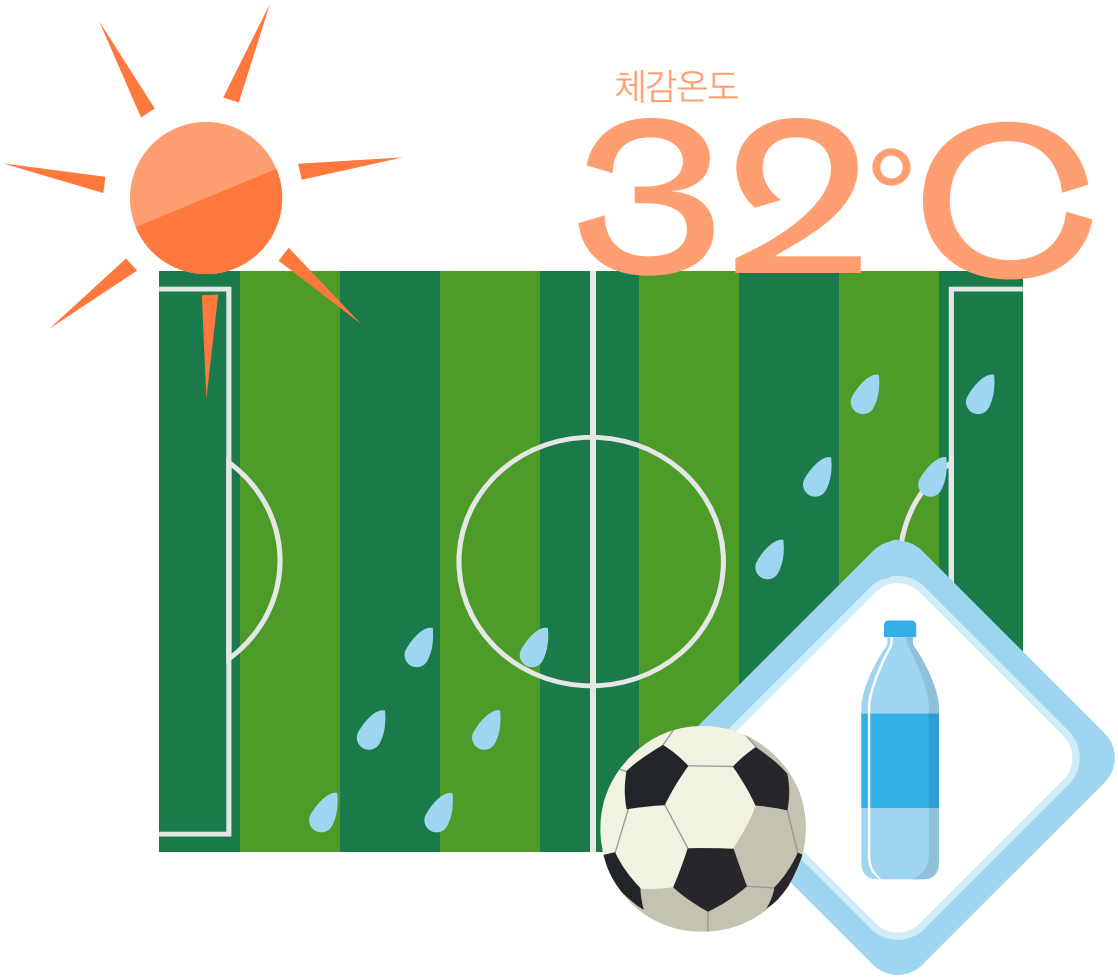


자갈만 남은 해변

피지의 국민 스포츠 럭비 실종

휴양의 나라로 알려진 피지의 또 하나 자랑 거리는 '럭비'이다. 피지는 인구 90만 명 중 럭비 등록 선수만 8만 명에 이를 정도로 럭비 사랑이 대단한 곳이다. 특히 나마타쿨라의 해변은 어린 시절부터 럭비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장소이자, 세계 리그에 진출한 럭비 선수들이 꿈꾸는 인재의 요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해변 침식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나마타쿨라의 해변에서는 럭비를 할 수 없게 됐다. 강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 열대성 폭풍인 사이클론과 높은 파도가 모래를 쓸어가면서 백사장에는 자갈만 가득하다. 해변 침식으로 범람한 바닷물은 마을을 덮치면서 마을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피지뿐만 아니라 태평양 섬나라들의 존폐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폭염 속 선수 보호를 위한

‘쿨링 브레이크’ 타임

올해 3월에 치러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한국 VS 태국 경기에서 ‘쿨링 브레이크’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쿨링 브레이크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체감온도 32℃를 기준으로 선수 보호를 위해 경기 도중 갖는 휴식시간을 뜻한다. 국내 및 국제 대회에서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 국제대회의 경우 경기장의 메디컬 오피서가 쿨링 브레이크 실시를 결정한다. 하프타임 15분 휴식 이외에 전반과 후반에 3분간 가능하며, 이때 선수들은 벤치에서 물을 마시거나 얼음 등으로 몸을 식힌다. 기후변화로 극심한 폭염이 선수들의 건강과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2021 도쿄 올림픽에서 확인한 바 있다. 폭염에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기절하거나, 육상 경기 도중 탈진한 선수를 위한 휠체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야외 테니스 경기장에서는 온도가 35℃에 달하면서 열사병으로 인한 기권 사례가 속출했다.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 문제에 대해 스포츠 관계자들과 선수들은 올림픽 개최 시점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느덧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게 되는 요즘! '가을 타나?'라는 마음에 싱숭생숭해지기도 하지만 이때만큼 감정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때도 없다. 넥센인들의 감성 충만한 하루를 응원하며! 사보 <헬로우 넥센>의 문화 지원금과 함께 특별한 주말 나들이를 즐긴 넥센인 3인방을 만나보자.

가을, 센치해지는 계절!
문화로 감성 충전하러 간다







색다른 영화 장르 도전!
미래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채웠어요.

즐기기 TIP

시리즈 영화이기 때문에 기존의 작품들을 정주행하고 가면 감상의 즐거움을 배가 시킬 수 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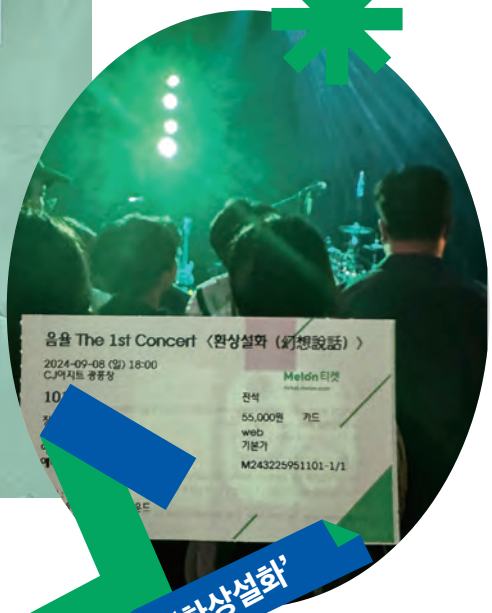
가이드 YPMES파트 **최민우 사원**

평소에도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헬로우 넥센>의 문화 지원금으로 어떤 작품을 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기존에 즐겨봤던 장르와는 다른 SF 공포물에 도전해 봤어요. 마침 개봉한 영화 중 외계 생명체가 등장하는 <에이리언: 로물루스>가 있어 예매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1986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SF 시리즈더라고요. 버려진 우주기지 '로물루스'에 도착한 인물들이 에이리언의 무자비한 공격에 맞서며 사투를 벌이는 내용인데요. 우주기지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모습이 생각보다 긴장감 있게 그려졌어요. 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등장하는 에이리언 때문에 놀란 가슴을 몇 번이고 쓸어내렸어요. 처음 보는 장르였지만 평일 저녁,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 ERP팀 **장정호 사원**





현장감 있는 사운드의 매력 음율 밴드의 첫 콘서트 '환상설화'



감상 포인트

스탠딩 콘서트 갈 때는 백팩보다
크로스백! 운동화는 필수예요.

26년간 경남 김해에서 살다가 취업하면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다른 무엇보다 '상경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문화생활 때문이었어요. 기존에는 서울에 와서 공연이나 전시를 즐기려고 하면 문화 생활비에 숙박비, 교통비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 큰 결심을 했어야 됐거든요. 이번에 사보 이벤트로 문화 지원금을 받아 관람한 공연은 '음율'이라는 밴드의 콘서트였어요. 사실 이 밴드를 안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음율 밴드의 첫 번째 콘서트라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물론 스탠딩이라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 듣게 된 노래가 너무 좋아서 다른 곡들도 찾아 듣다 보니 출퇴근길에 항상 음율 밴드와 함께하게 됐네요. 음원으로도 좋았지만 공연장에서 우퍼 사운드와 현장감을 느끼며 들으니까 역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깬 '뱅크시 전시'



담당 강지영 팀장 | 브랜드유니케이션팀

리얼 뱅크시 전시회
장소 그라운드 서울
기간 2024년 10월 20일까지

사보 <헬로우 넥센> 덕분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전시를 보고 왔어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위트까지 겸비한 얼굴 없는 작가 뱅크시의 작품은 보는 재미와 더불어 생각하는 즐거움까지 있었어요. 종로에 위치한 그라운드 서울에서 10월 20일까지 열리는 뱅크시 전시는 '페스트 컨트롤*'의 공식 인증을 받은 29점을 포함한 총 13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열렸던 뱅크시 전시 중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폭력과 차별, 권위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던지는 뱅크시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사회 문제를 곱씹게 만듭니다. 마케팅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뱅크시의 이러한 모습들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작품 이외에도 다양한 영상물, 인터뷰 등이 함께 구성돼 있어 뱅크시라는 사람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는 기회였어요.

*페스트 컨트롤: 뱅크시는 얼굴 없는 아티스트로,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뱅크시가 설립한 '페스트 컨트롤'에서 작품의 진품 여부를 판정한다.



즐기기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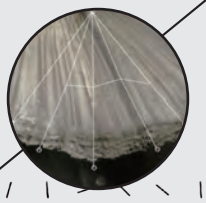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면 작품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요~

예술계를 뒤흔든 풍운아?!
한계를 모르는 아티스트 AI씨!

최근 광고나 기사, 방송 등을 보면 'AI로 작업된 이미지입니다'라는 멘트를 흔히 볼 수 있다. 시, 영화, 그림, 음악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예술계를 종횡무진하는 AI! 아티스트의 조력자인가? 아니면 경쟁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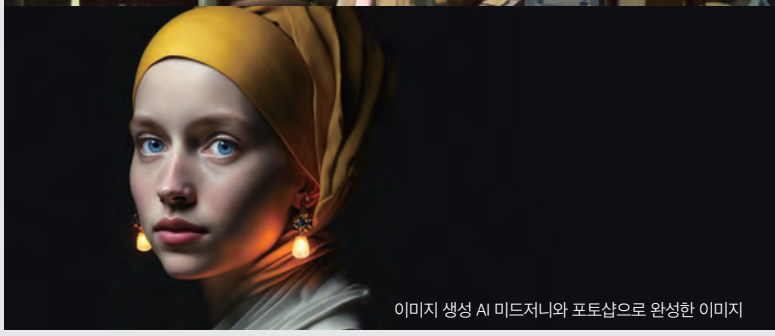
넥스트 렘브란트(The Next Rembrandt)

AI 이미지 생성프로그램 당신은 렘브란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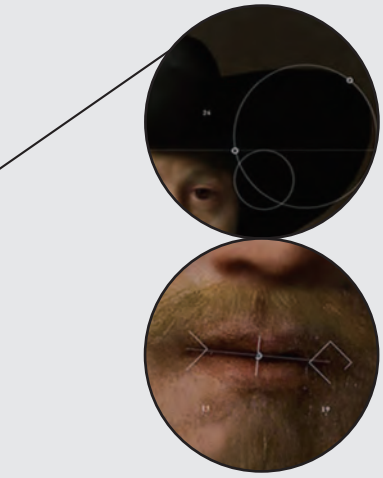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 렘브란트 미술관, 그리고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넥스트 렘브란트(The Next Rembrandt)'의 결과에 전 세계 예술가들은 충격에 빠졌다. 연구팀은 2년 동안 인공지능을 통해 렘브란트의 작품 346점을 딥러닝하여 작가의 화풍을 파악했다. AI가 분석한 유화의 질감과 붓 터치, 밀도는 13개의 레이어로 구성해 3D 인쇄로 구현했고, 약 1억 4,800만 픽셀 이상의 이미지로 놀라울 정도의 풍부한 색감을 재현했다. 질감까지 생생하게 표현한 AI의 모작 앞에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미지 생성 AI 달리가 아웃 페인팅 기술로 배경을 그려 넣은 이미지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와 포토샵으로 완성한 이미지



이 프로젝트 이후, 화가를 꿈꾸는 AI는 어떻게 더 진화했을까? 이제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에 프롬프트(명령어)만 입력하면 세계적인 예술가의 화풍을 쉽게 모방할 수 있고, 나만의 스타일로 변형도 가능하다. 명령어만 넣으면 피카소의 작품을 고흐 스타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지 생성 AI 달리(DALL·E2)는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원작에는 없었던 배경을 실감 나게 창작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의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에서 열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모티브 전시에서도 AI가 화두였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율리안 판디컨이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Midjourney)로 작업한 <빛나는 귀걸이를 한 소녀>를 이 전시에 출품하자, 미술계에선 "예술가에 대한 모독", "유서 깊은 명작과 함께 걸릴 자격이 없다" 등 논쟁이 벌어졌다.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AI 아티스트 에이다(Ai-da)

이와 같은 모방을 넘어 창작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AI 아티스트도 있다. 영국에서 개발한 에이다(Ai-da)는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AI 아티스트이다. 안면 인식 기술이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데이터를 인식하고 AI로 분석한 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펜으로 스케치 정도 할 수 있었던 에이다는 이제 직접 팔레트와 붓을 들고 색감을 조합하며 작품을 완성한다. 2019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베네치아, 런던 등에서 초기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I 영화 한 편 크랭크인
제작 기간 5일, 제작비 0원

회화를 넘어 영상 창작에서도 AI의 활약은 눈에 띈다. 올해 5월에 개봉한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 속 유인원의 리얼한 표정과 움직임은 AI를 통해 배우의 연기를 딥페이크 기술로 완성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AI 덕분에 배우들은 다양한 작품에서 특수 분장 없이도 10대에서 80대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얼굴로 연기가 가능해졌다. 일부 효과에 사용됐던 AI는 이제 영화 제작의 중심에 섰다.

"AI는 예상하지 못한, 기대 이상의 비주얼을 보여줬다.
AI 영화 제작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결국 프롬프트(명령어)에 얼마만큼 섬세하고 정확하게 쓰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

권한슬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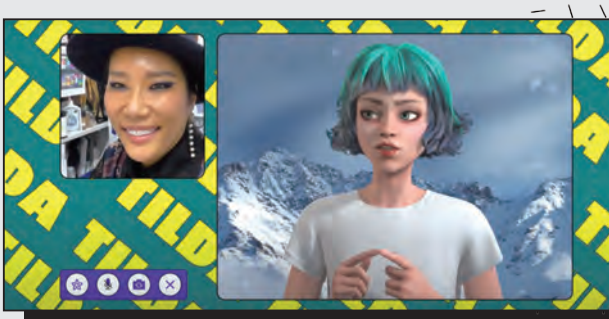


BIFAN AI부문 수상작 <할머니들은 어디로 떠난 걸까?>



권한슬 감독 영화 <One more pumpkin>

이번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는 국내 영화제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AI) 부문을 신설해, AI 기술로 제작된 영화 15편을 심사했다. 수상작들은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과 기술을 보여줬다. BIFAN 특강 무대에 오른 권한슬 감독은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 '경쟁' 부문에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동아시아 작품으로 초청을 받았다. 그의 작품인 <One more pumpkin>은 실사 촬영도 CG 보정도 없이 순수 생성형 AI만으로 만들어졌으며 제작 기간 단 5일, 제작비는 전기요금이 전부였다. 배우도, 촬영 현장도, 카메라도, 스태프도 필요 없이 영화가 완성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LGSTORY

인간을 넘어서는가? 인간과 함께하는가?

AI 예술에 있어 저작권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그런데도 최초로 AI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다. 프랑스 음악저작권협회(SACEM)에서 AI 작곡가 에이바(Aiva)를 저작권자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약 3만 개가 넘는 곡을 학습한 에이바는 실제로 영화 OST를 작곡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소니에서 자체 개발한 AI 플로우머신즈(flowmachines) 또한 기존 1만 3천여 곡을 분석해 새롭게 노래를 발표한 바 있다. 몇 가지 키워드와 조건을 입력하면 AI는 단시간에 수백, 수천 곡을 작곡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셈이다. 물론 사람의 세밀한 명령어가 기반이 돼야 하며, AI로는 아직 미흡한 작사나 연주, 가창은 보완돼야 한다. 현재는 인간과 AI의 협업 단계에서 창의적 시너지가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뉴욕 패션 위크에 작품을 선보인 박윤희 디자이너는 LG 인공지능 아티스트 '틸다Tilda)'와의 대화를 통해 디자인 콘셉트를 도출했다. 틸다는 '기온이 오르면 지구는 금성처럼 변할 것'이라 상상하며 '금성에 핀 꽃'이란 아이디어로 패턴 제작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협업 아티스트로 패션 위크 무대에 당당히 섰으며, 이 과정을 담은 캠페인 내용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 'The future Now'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AI를 통해 이제 누구나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며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낮아진 예술의 문턱 앞에서 모두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창작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사진과 영상의 발명이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던 만큼 AI가 던진 예술계의 도전장이 인간에게 또 어떤 짜릿한 영감이 되어 줄지 기대된다.

인공지능 에이바 음악

틸다와 박윤희 대화







마곡 직원들과 함께 한 영화 '파일럿' 단체 관람

지난 7월 28일, 넥센타이어 임직원 및 가족 270여 명이 영화 '파일럿' 단체 관람을 위해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점을 찾았다. 영화 '파일럿' 관계자는 넥센중앙연구소를 촬영 배경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고자 관람 이벤트 자리를 마련했다. 영화 상영 전 조정석과 이주명, 한선화 등 출연진들의 깜짝 무대 인사를 가져 더욱 특별한



01

시간이 됐다. 좋아하는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신청자들이 몰려 이벤트 참여가 치열했다는 후문이 있다.
영화 '파일럿'은 여장을 한 조정석의 좌충우돌 상황을 그려낸 코믹 영화이다. 넥센 인들은 익숙한 회사 로비와 회의실 등이 스크린에 등장할 때마다 반가움을 느꼈다. 동료 및 가족과 함께한 영화 나들이였던 만큼 더욱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Text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사내 원데이 클래스
라탄 공예 조명 만들기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고, 타 부서 동료와도 허물없이 소통하는 쎈트리 클래스! 지난 7월 4일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는 25명의 직원들이 라탄 공예 조명 만들기 클래스에 참여했다. 일명 왕골이라 불리는 라탄은 자연의 감성을 담고 있는 동시에 이국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 인테리어 소품으로 특히 인기가 많다.
나무 줄기 형태의 라탄을 받아 들고 낯설어 하는 참여자들은 우선 소재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02

딱딱한 나무 줄기에 물을 먹여가며 한 땀 한 땀 잇는 과정은 예상보다 고도의 집중력과 손끝의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다. 여기저기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강생들이 등장하고, 처음보는 옆자리 동료를 서로 도와주는 풍경이 눈에 띄었다. 고군분투하다 보니 어느새 조명다운 멋스러운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빠름이 익숙한 요즘, 느릿한 속도로 엮음의 미학을 즐겨본 시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여자들에게 힐링의 경험을 안겨줬다.

Text 편집실 Photo 김정호

Mini interview



한국OE개발팀
김경준 선임연구원

아무 생각없이 나무 줄기를 엮어가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재밌었어요. 가죽 공예는 해봤는데, 라탄 공예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클래스를 통해서 다른 부서 동료들과 업무 외적으로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튜브영업2팀
이용원 수석

와이프가 취미로 라탄 공예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친숙한 소재였던 것 같아요. 직접 해보는 건 처음이었는 데요. 생각보다 손가락도 아프고 쉽지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새로운 경험이면서 아내의 취미 생활을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반세기 동안 이어진 품질 혁신
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로 명칭을 바꾸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번 대회는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5일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총 298팀의 분임조가 참가해 국내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자주적 개선 활동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해, 국가산업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식 기반형 우수 분임조를 발굴·육성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벤치마킹하기 위한 발표 대회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개회식 주요 내빈으로 강호찬 부회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강명수 표준협회장, 동서발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삼성전자 등 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상남도 예선 대회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받고 경상남도와 넥센타이어를 대표하여 출전하게 된 창녕공장 생산팀 정련파트 열정분임조와 금형파트 검지분임조 발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석식 행사가 진행됐다. 그 자리에는 창녕공장장 정현철BS장, 강인구 창녕 노조지부장과 노조간부, 그리고 특별히 강호찬 부회장도 함께해, 발표자들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회 2일 차인 8월 27일에는 자유형식(제조) 부문에 출전한 검지 분임조와 현장개선 부문에 출전한 열정분임조가 각각 금상을 수상했다. 금상이란 최상의 결실을 이룬 분임조는 11월 20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영광스러운 대통령 금상 메달과 상패를 받게 된다.

Text. Photo (CP)TPM파트 김종호 파트장











제1회
노동조합 지부장배 탁구대회

지난 2024년 8월 29일 창녕공장에서는 제1회 노동조합 지부장배 탁구대회 결승전이 펼쳐졌다.

8월 26부터 29일까지, 4일간 토너먼트로 진행된 사내 탁구대회에는 창녕공장 임직원 모두의 뜨거운 관심 가운데 부서별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총 8개팀이 참여해 치열한 예선전과 결승전이 치러졌다.

예선전과 준결승전은 창녕공장 본관 복지동 탁구장에서 진행되었고, 대망의 결승전과 3~4위전은 본관동 1층 로비에 마련된 탁구대회장에서 진행되었다.

8월 29일 3~4위전 경기가 먼저 시작됐다. 마지막 순위 쟁탈전인 만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냉정한 경기가 진행된 가운데 5팀(품질검사팀)이 4팀(가류+금형파트)을 누르고 3위에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이어진





결승전에서는 사뭇 경기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창녕공장 탁구 재야의 고수들이 모여 진검승부를 가리는 결승전은 경기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탁구대회 우승을 위해 연습에 매진하며 흘린 땀의 시간을 알기에 각 팀 응원단의 응원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치열한 경기가 진행 될수록 넓은 로비에는 양 팀의 탁구공 소리만 울리며 긴장감을 더했다. 환호와 탄식이 이어진 명승부 끝에 8팀(연구소+생산기술팀+인사지원팀)이 6팀(공무팀)을 누르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 강인구 지부장의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제1회 노동조합 지부장배 탁구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강인구 지부장은 “금번 탁구대회를 통해 창녕공장 임직원 모두가 단결되고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이 함양할 수 있도록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Text. Photo (CP)노사협력파트 이강우 책임



NEWS

포르쉐 카이엔 신차용 타이어 공급
프리미엄 OE 공급 확대



넥센타이어가 포르쉐의 카이엔 3세대 신형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로 '엔페라 스포츠 SUV(N'FERA SPORT SUV)'를 공급한다고 7월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차용으로 공급되는 '엔페라 스포츠 SUV'는 SUV 차량에 맞춰 설계된 프리미엄 타이어로 넥센타이어 유럽 공장에서 생산된다. 고속주행에 적합한 비대칭 패턴과 3+1 광폭 그루브를 적용해 배수 성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접지력과 제동력을 강화한 최신 컴파운드가 적용되었으며, 패턴 설계 최적화를 통해 고속 주행 안정성과 핸들링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다. 넥센타이어는 2016년부터 포르쉐 카이엔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카이엔 신형 모델은 물론 파나메라, 마칸 등에도 신차용 타이어로 넥센타이어가 장착된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확대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레벨4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넥센타이어가 중국 우한에서 상용화에 돌입한 바이두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아폴로 RT6’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AI 기업 바이두의 6세대 자율주행 플랫폼이 탑재된 아폴로 RT6는 SUV 형태를 띤 전기차로, 완전무인자율주행(레벨4)을 달성해 차량에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아폴로 RT6는 현재 중국 우한에서 500여 대의 무인 택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0여 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바이두 아폴로 RT6에 공급되는 ‘로디안 GTX’는 SUV 전용 제품으로 제동 성능, 눈길 성능, 마모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최적의 밸런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면으로부터 압력을 분산시키는 트레드 설계로 순간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마른 노면과 눈길 성능을 동시에 보완한 접지 성능 강화로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2년 최초로 해외 완성차 제조사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시작한 넥센타이어는 글로벌 브랜드에 공급을 확대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완성차의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에 자율주행 산업의 선도기업으로 꼽히는 바이두의 무인 로보택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게 된 것은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 제품 개발 노력에 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최근 넥센타이어는 미국 자동차 역사의 상징이기도 한 닷지의 차세대 차저, 챌린저 모델 및 Jeep의 순수 전기 SUV 모델인 리콘과 PHEV로 출시되는 체로키에 장착될 타이어를 개발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현재 넥센타이어는 전 세계 29개 브랜드, 115개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250여 개 차종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한 타이어 개발을 선도하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 축구 리그와 지속적인 파트너십 유럽공장 증설 맞춰 고객 접점 확대



넥센타이어는 유럽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축구 구단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24/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5개 구단(TSG 1899 Hoffenheim, FC Heidenheim, FC Augsburg, FSV Mainz 05, and VfL Bochum 1848) 홈 경기에 LED 광고를 노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독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에 브랜드를 노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또한, 지난 7월 10일 넥센타이어는 체코를 대표하는 프로축구 클럽 중 하나인 SK Slavia Praha와의 파트너십 연장 소식을 전했다. 이번 파트너십 연장으로 넥센타이어는 유럽공장이 위치한 체코 축구 팬 및 고객과 소통하며 브랜드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체코 자테츠에 위치한 유럽 공장 2단계 증설을 완료했다. 연간 1,100만 본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최신식 공장과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 시장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넥센타이어가 스포츠를 후원하는 데에는 마케팅 목적 외에도 비인기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KNN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넥센타이어배 3쿠션 당구대회’는 총 319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지난 7월 7일 결승전을 치르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글로벌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며 “당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브랜드를 세계 무대에 알리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현실·인공지능 활용한 연구개발



넥센타이어가 모빌리티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연구개발에 활용하여 타이어 개발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 기술로 가상의 타이어를 이용해 성능을 평가하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으로 타이어의 성능을 예측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4일 넥센타이어는 VR을 활용해 타이어를 개발하는 장비인 'High Dynamic 드라이빙 시뮬레이터(Driving Simulator)'를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장비 제작사인 영국 '앤서블 모션(Ansible motion)'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도입으로 차량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가상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완성차 제조사들과의 협업 강화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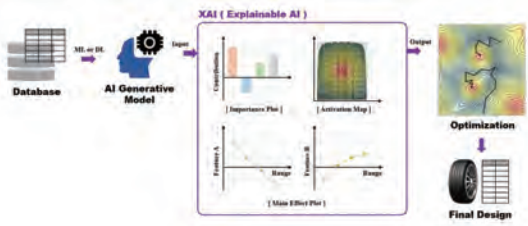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타이어의 성능을 수학적으로 구현한 가상의 타이어를 실차에서 평가하는 것 같은 환경으로 운전자에게 연출해 주는 최신 장비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차선 변경, 코너링 및 다양한 노면에서 실제 주행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장비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구성해 타이어 성능을 예측하고, 정밀한 타이어 모델링 기술을 접목해 △제품 설계 △성능 평가를 구현할 수 있다.

넥센타이어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도입을 통해 신차형 타이어(Original Equipment, OE)가 요구하는 성능을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화하여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타이어 개발 절차에 VR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성능 예측이 가능하고, 시제품 제작 및 실차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기 때문에 개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넥센타이어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도입 전에도 VR은 물론 AI기술을 타이어 개발에 접목해 왔다. 2022년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컨셉 단계에서 타이어 주요 성능을 예측하는 AI 활용 타이어 성능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타이어 개발자들은 연비, 소음, 핸들링, 접지력, 강성 등 주요 성능을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넥센타이어는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시험 데이터를 활용해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검증했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타이어 개발에 AI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주어진 시험 값에 답안만 산출해 내는 기존 AI기술을 넘어 결과 도출 과정까지 이해·분석할 수 있는 XAI(eXplainable AI)를 기반으로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XAI와 3D 프린팅 기술로 제품 개발 패러다임 전환





넥센타이어가 XAI(eXplainable AI)를 활용한 설계 프로세스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몰드(금형) 제작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타이어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포르쉐, BMW, 벤츠 등에 프리미엄 OE(Original Equipment,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 넥센타이어는 혁신적 기술을 접목한 타이어 개발을 통해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의 파트너십을 지속해서 확대할 전망이다.

전통적인 타이어 개발은 구조 및 패턴을 설계한 뒤 몰드를 제작하여 시제품을 제조하고, 차량에 장착해 성능을 테스트하여 완제품으로 최종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넥센타이어는 이러한 개발과정을 단순화하고, 보다 정교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XAI와 3D 프린팅 기술을 타이어 개발에 접목하는 데 성공했다.

XAI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결과의 원인 및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기본 설계 △주요 설계 변수 △성능 기여도 △설계 방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타이어 설계 효율을 극대화시키며, 타이어 개발자가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하는 최적의 구조와 설계를 제안한다.

넥센타이어는 XAI를 활용한 설계를 바탕으로 Virtual Tire Model(가상현실의 타이어 모델)을 생성하고, 가상환경에서 제품 성능을 평가하여 타이어 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조기에 성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업계 최초로 도입을 결정한 High Dynamic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가상 개발 프로세스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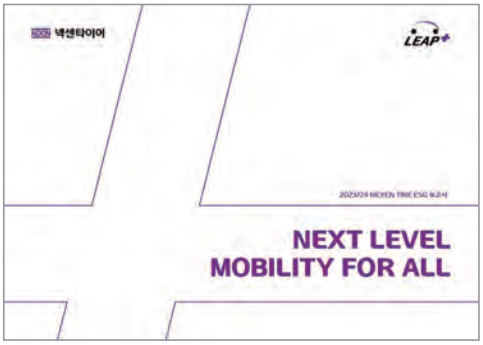
가상 개발 단계를 통과한 모델은 시제품을 제작하여 최종 실물 평가를 진행하는데,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선 타이어를 찍어내는 틀인 '몰드' 제작이 필요하다. 넥센타이어는 3D 프린팅 기술로 몰드를 제작하여 다양한 디자인, 규격의 시제품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으며, 가상 개발을 통해 한 단계 검증된 만큼 시제품의 완제품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몰드 제작에만 2~3개월이 소요되었지만,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몰드 제작 기간은 최소 70%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제작 비용도 최소 5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개발 초기 단계부터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3D 프린팅을 활용한 몰드 제조 기술은 다양하고 복잡한 패턴과 커프(타이어가 구르면서 지면과 닿는 부분인 트레드에 있는 미세한 틈)를 포함한 혁신적인 타이어 디자인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차량의 고성능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넥센타이어는 자체 아이디어를 추가로 적용한 3D 프린팅 기술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를 출원했다.

넥센타이어는 개발 프로세스 혁신으로 상품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버려지는 시제품의 양과 비용을 줄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에 기여할 수 있다.

‘ESG 경영’에 진심
글로벌 평가서 통했다



2023/24 넥센타이어
‘ESG 보고서’ 확인 및 다운로드

넥센타이어 외부 이니셔티브 현황

구분	등급	비고
Sustainalytics	Low Risk (12.9)	2024
EcoVadis	Gold (3%)	2024
CDP (Climate Change)	B	2023

유엔 글로벌 임팩트 UNGC 가입 (2021년)
TISAX 독일자동차산업협회 정보보안관리인증 (2022년)
GPSNR GPSNR 가입 (2020년)

넥센타이어가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7월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골드 등급’을 획득했으며, 한 해 동안의 ESG 경영 활동 성과를 담은 ‘2023/24 ESG 보고서’도 최근 발간했다.

에코바디스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으로 180개국 13만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조달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글로벌 탑티어 타이어 제조사인 미쉐린, 브리지스톤, 콘티넨탈, 피렐리 등도 에코바디스의 평가를 받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2021년 브론즈 등급을 획득한 후, 2022년과 2023년 실버 등급, 올해 골드 등급을 획득하며 꾸준히 평가 등급을 개선하고 있다. 골드 등급은 상위 5%에 해당하며, 넥센타이어는 환경, 인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윤리, 지속가능조달 점수를 크게 높이며 상위 3%를 기록했다. 이는 넥센타이어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에 18개 정책과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또한 넥센타이어는 2020년부터 매년 ESG 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를 발행하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 산하에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한 후 첫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는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권고안에 따른 분석 및 목표 공시 △원재료, 물류, 유통, 서비스를 포함한 공급망 ESG 평가 실시 △지속가능한 원재료 적용 비율 및 친환경 제품 판매 비중 목표 제시 등 한 해 동안의 성과와 지향하는 목표를 담았다.

친환경 제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넥센타이어의 의지는 다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럽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빌트(Auto Bild)’로부터 넥센타이어 올웨더 제품인 ‘엔블루 포시즌 2(N’BLUE 4Season 2)’가 미쉐린과 공동으로 ‘그린 타이어(Green Tire)’ 등급을 획득했으며, 올해 초 국제 환경비영리기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의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계단 오른 B등급을 획득했다.

넥센타이어는 인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유엔 산하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인 UNGC(UN Global Compact)의 회원사로서 인권, 노동, 환경 등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다양한 행사에 참가해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역량을 높여가고 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2020년부터 지속가능한 천연고무 플랫폼 GPSNR(The Global Platform for Sustainable Natural Rubber)에 가입해 타이어의 주 원료인 천연고무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2년 독일자동차산업협회 정보보안관리인증(TISAX, Trusted Information Security Assessment Exchange)을 획득하며 정보보호에 대한 노력도 인정받고 있다.

‘GCSI 글로벌 고객만족도’
15년 연속 1위



넥센타이어는 산업부 산하 글로벌경영협회 주관 GCSI 글로벌고객만족도 타이어 부문에서 15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오랜 시간 고객의 관점에서 우수한 제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넥센타이어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GCSI 글로벌고객만족도 조사는 산업부 소관 사단법인 글로벌경영협회가 주최하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고객만족 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세계 지향적인 고객만족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년 차를 맞았다.

넥센타이어는 올해 조사에서 △성능 우수성 △고객 지향성 △고객 유지 관리 △가격 대비 품질 △글로벌 경쟁력 △재구매 의향 등의 요소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업계 종합 1위를 달성했다. 넥센타이어는 포르쉐, 벤츠, BMW, 아우디 등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품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마곡에 위치한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R&D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의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넥스트레벨’
국가서비스대상 5년 연속 수상

넥센타이어의 ‘넥스트레벨’ 서비스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24 국가서비스대상’ 타이어 종합서비스 부문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최 및 후원하며 △경영실적 평가 △브랜드 가치 △고객 만족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총 10가지의 세부 평가항목을 심사해 우수 브랜드를 선정한다.

‘넥스트레벨’은 고객 관점에서 설계된 서비스의 편리성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5년 업계 최초로 출시한 넥스트레벨은 고객의 부담은 낮추고,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O2O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품을 주문한 뒤 가까운 전문점에 방문하거나, 전문가가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해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다.

넥스트레벨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목돈 부담 없이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동안 프리미엄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타이어 렌탈 전문점에서 계약기간 차량 및 타이어 정기 점검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 및 조기 마모 시에도 타이어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파손 보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호찬 부회장은 “브랜드 슬로건인 'We Got You'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고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늘 고객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넥센타이어가 고객의 이동에 만족을 제공하는 창조적인 변화를 주도하여 고객이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ELLO NEXEN MAGAZINE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사내 특별한
소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 가을호 이벤트 참여

〈헬로우 넥센〉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단의 QR 코드 스캔하기

▼

이벤트 참여하기

▼

인적사항 기입

▼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프티콘 증정)

당첨자 확인과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N'FERA Supreme
소리 없이
편안 하니까!
N'FERA Supreme
PC / SUV
NEXEN TIRE
we got you



나무로 무성했던 숲속도 걷다 보면 반드시 길이 생깁니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그렇듯 길을 만들고,
그 길들은 뒤에 올 누군가에게 걸어갈 방향을 일러줍니다.
나의 새로운 한 걸음은 도전의 가치이자, 뒤따르는 사람에겐
내디딜 수 있는 고마운 징검다리입니다.

NEXEN TIRE
we got you